

# “국가대표 자신감 이젠 K리그2에서 보세요”



펜싱 여자 에페 대표팀 선수들이 1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19 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혜인(강원도청), 최인정(계룡시청), 강영미(광주서구청), 정효정(부산시청). /강영미 인스타그램

## 광주서구청 강영미 아시아펜싱선수권 ‘금’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과 여자 에페 대표팀이 나란히 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오상욱, 하한솔(이상 성남시청), 구본길(국민체육진흥공단), 김준호(화성시청)로 이뤄진 한국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1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19 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 남자 사브르 단체전 8강에서 베트남을 45-30으로 완파하고 준결승에서 일본에 45-37로 승리했다. 그리고 이란과 결승에서 접전 끝에 45-42로 승리하며 우승했다. 오상욱은 개인전에 이어 단체전에서도 우승해 이번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여자 에페 대표팀 최인정(계룡시청), 강영미(광주서구청), 이혜인(강원도청), 정효정(부산시청)은 같은 날 여자 에페 단체전 결승에서 중국에 45-30으로 완승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16강에선 뉴질랜드에 45-23, 8강에선 이란에 45-29, 준결승에선 45-31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 한국 카타르월드컵 2차예선 1번 포트 배정

9월 아시아 2차 예선 시작

한국 축구가 올해 9월 시작되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에서 예상대로 1번 포트에 배정됐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은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을 기준으로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포트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은 FIFA 랭킹에 따라 8개 팀씩 배정한 다섯 개 포트 중 톱시드에 해당하는 1번 포트에 배정됐다. FIFA 랭킹 37위인 한국은 이란(20위), 일본(28위), 호주(43위), 카타르(55위), 아랍에미리트(UAE·67위), 사우디아라비아(69위), 중국(73위)과 1번 포트에 묶여 2차 예선에서는 대결하지 않는다. 2차 예선은 AFC 소속 국가 중 FIFA 랭킹을 기준으로 추린 34개국과 하위 순위 12개국 중 플레이오프를 통과한 6개국 등 총 40개국이 참가하는데, 5개 팀씩 8개 조로 나눠 내년 6월까지 진행된다. 각 조 1위 8개국과 각 조 2위 중 성적이 좋은 4개국 등 총 12개국이 최종예선에 진출한다. 최종예선에서는 12개국이 AFC 산하 국가에 배정된 4.5장의 월드컵 본선 출전권을 다룬다. 2차 예선 주 개최지는 7월 17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데, 한국 축구대표팀 사령탑인 파울루 벤투 감독이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국가대표팀에서 쌓은 자신감을 K리그2에서도 보여줬으면 좋겠다.” 박진섭 광주FC 감독이 연령별 대표팀에 잇따라 차출되고 있는 소속팀 선수들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올해 대표팀 경기와 소집훈련, 전지훈련 등에 선수를 계속 보내주면서 한번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적 없는 박 감독이다. 시즌 초반 딱 한 차례 리그 경기 소화를 위해 하루 늦게 보내줬을 뿐, 모든 차출에 흔쾌히 응하고 선수를 보냈다. 오히려 차출된 선수들이 소속팀에서의 경쟁에서 밀리는 것인가 서운해질(?) 정도다. 연령별 국가대표팀 부름을 받고 있는 광주FC 선수는 5명이다. 최근 201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준우승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엄원상(20·FW)을 비롯해 김정환(22·FW), 임민혁(22·MF), 이희균(21·FW), 김태곤(21·GK)이 바로 그들이다. 5명의 선수 모두 2020도쿄올림픽을 준비하는 U-22대표팀 김학범 감독의 부름을 받아 지난 겨울 전지훈련부터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예선, 그리고 국내 소집훈련 등을 소화하고 있다. 특히 엄원상은 U-20 대표팀까지 차출되면서 U-22대표팀과 소속팀 광주



왼쪽부터 광주FC 엄원상, 김정환, 임민혁, 이희균, 김태곤.

## 광주FC 엄원상·김정환·임민혁·이희균·김태곤 U-20, U-22 대표팀 대회·국내훈련 잇단 차출 박진섭 감독 “공격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기대”

FC 선수까지 1인3역으로 분주한 일정을 보냈다. 엄원상은 고교 시절부터 태극마크를 달아 2018수원JS컵, 톨롱컵, AFC U-19챔피언십 등에서 맹활약했다. 올해 광주FC에 입단, 4경기에 나서며 주전 경쟁을 펼친 덕에 지난 16일 막을 내린 U-20 월드컵에서 ‘특급 조커’ 역할을 맡았고, 폭발적인 스피드와 돌파력으로 후반 경기 흐름을 바꿔놓는 중요한 임무를 했다. 김정환은 엄원상과 함께 꾸준히 김학

범 감독의 부름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AFC U-23 챔피언십 전지훈련과 3월 예선경기에 차출돼 대표팀의 본선 출전권 획득에 기여했다. 김정환과 엄원상은 측면공격수로 포지션이 같아 팀내에서도, U-22 대표팀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임민혁, 이희균, 김태곤도 김학범 감독이 눈여겨보는 선수들이다. 임민혁과 김태곤은 지난해 겨울 울산 전지훈련에 차출됐었고, 최근 A매치 휴식기를 맞아 3-11일 강원도 정선에서

벌어진 2020도쿄올림픽을 위한 U-22 대표팀 2019 국내 1차 소집훈련에 이희균과 함께 소집돼 훈련을 마치고 팀에 복귀했다. 내년은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해다. 김학범호는 내년 1월 태극에서 열리는 AFC U-23 챔피언십 본선에 나선다. 대회 본선은 아시아에 3장의 티켓(일본 제외)이 걸린 2020 도쿄올림픽 최종예선을 겸한다. 광주 선수들은 소속팀에서 경기를 뛰며 도쿄행 김학범호 승선을 욕심내고 있다. 박진섭 감독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대표팀의 부름을 받는 선수들은 끝까지 김태곤을 제외하고 모두 광주의 주전급 선수들이다. 국가대표발탁으로 인해 선수들의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경기력도 업그레이드된다면 승격 경쟁중인 광주에는 큰 힘이 된다.

박 감독은 지난 16일 부천과의 K리그 2 15라운드 경기 끝난 뒤 “김정환의 플레이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 김정환이 잘해주면서 좌우 밸런스가 잘 맞았다”면서 “엄원상이 복귀하면 (김정환과)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공격적으로 마음에 드는 경기였다”고 밝혔다. 박 감독은 또 김학범호의 강원도 국내 소집훈련을 다녀온 임민혁을 이날 경기에 교체 투입하며 활용도를 높였다. 대표팀 훈련에서 왼쪽 눈 윗부분을 다친 이희균은 이날 경기에서 제외돼 아쉬움을 남겼다. 첫 대표팀 소집훈련을 다녀온 이희균은 “경기에 못 뛰어서 아쉽지만 대표팀 훈련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며 “더 열심히 해서 다시 한번 김학범 감독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있다. 박진섭 감독은 “대표팀에 다녀온 선수들이 자신감을 얻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그 자신감을 운동할 때 보여줬으면 좋겠다”면서 “이번에 U-20대표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엄원상도 그 모습 그대로 K리그2에서 보여줄 바란다”고 밝혔다. 15경기 무패행진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광주FC는 오는 24일 수원FC와 16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최진화 기자



18일 새벽(한국시간) 프랑스 랭스의 스타드 오귀스트-들론에서 열린 2019 국제축구연맹 프랑스 여자 월드컵 조별리그 A조 3차전 한국과 노르웨이의 경기. 한국 여민지가 골을 넣고 있다. /연합뉴스

## 윤덕여호 3연패 여자월드컵 16강 탈락

2회 연속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 월드컵 16강 진출에 도전한 ‘윤덕여호’가 프랑스에서 3연패를 안고 아쉽게 대회를 마쳤다. 윤덕여 감독이 이끄는 여자 축구대표팀은 18일(한국시간) 프랑스 랭스의 스타드 오귀스트-들론에서 열린 노르웨이와의 2019 프랑스 월드컵 조별리그 A조 3차전에서 노르웨이에 1-2로 졌다. 이로써 한국은 조별리그 3경기 전패를 기록, 승점 없이 최하위에 그쳤다. 2015년 캐나다 대회에서 1승 1무 1패, 조 2위로 사상 첫 월드컵 16강 진출을 일궈냈던 것보다 한 걸음 퇴보한 성적을 남겼다. 한국은 노르웨이와의 3차전 후반전 중반까지 한 골도 뽑아내지 못하며 사상 첫 ‘무득점 월드컵’의 불명예를 쓸 뻔했으나 후반 33분 여민지(수원DS공사)가 만회 골을 뽑아내며 유일한 득점을 남겼다. 프랑스와 나이지리아전에서 패한 한국은 실낱같은 16강 희망이 남아 있던 노르웨이와의 최종전에서 페널티킥으로만 두 골을 내주며 밀린 흐름을 되돌리지 못했다. /연합뉴스

## 고흥고 신록 학생신기록 ‘번쩍’

### 2019 전국남자역도 61kg급 인상·용상 기록 세우며 우승 같은 체급 남자일반부 선수 기록과 1kg 차이 역대급 주목

‘역도 천재’ 고흥고 신록(2년)이 학생신기록 수립은 물론, 같은 체급 일반부 선수 기록에 육박하는 결과를 달성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신록은 지난 13일부터 경남 고성 역도전용경기장에서 열리고 있는 2019 전국남·여역도선수권대회 남고부 61kg급 인상(123kg), 용상(153kg), 합계(276kg)에서 우승했다. 매년 출전 대회마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신록은 이번 대회에서도 인상과 용상 한국 학생기록을 수립했다. 신록은 인상 1차 시기에서 115kg을 들어 일찌감치 1위를 선점했다. 2차 시기에서 120kg에 성공한 신록은 3차 시기에서 123kg을 들어올려 학생기록 타이를 기록했다. 한편, 같은 체급에 나선 정광고 나민주(1년)는 인상(111kg) 2위, 용상

기에서 145kg을 가볍게 들어올린 신록은 2차 시기에서 150kg을 기록하며 종전 학생기록 149kg보다 1kg을 더 들었다. 그리고 신록은 3차 시기에서 153kg으로 다시 한번 학생기록을 작성했다. 특히 신록은 이제 고교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체급 일반부 선수 기록과 불과 1kg차이 밖에 나지 않아 주목을 끌었다. 남자일반부 61kg급 인상 1위 기록은 123kg, 용상 1위 기록은 154kg였다. 이영래 전남역도연맹 전무이사는 “신록은 이번 대회에서 같은 체급 일반부 선수와 인상 기록이 같았고, 용상에서 1kg이 적었다. 전국체전에서는 같은 체급 일반부 선수보다 기록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체급에 나선 정광고 나민주(1년)는 인상(111kg) 2위, 용상



(136kg) 3위, 합계(247kg) 3위를 기록했다. 남고부 102kg급 정광고 김경민(2년)은 인상(133kg) 2위, 용상(172kg) 2위, 합계(305kg) 2위를 했다. 광주체고 박수빈(3년)은 여고부 +87kg급에서 인상(94kg) 2위, 용상(120kg) 1위, 합계(214kg) 1위를 차지했다. /최진화 기자

## KIA 이범호 “후배·팀 미래 위해 떠난다”

### 내달 13일 한화전서 은퇴식

KIA 타이거즈 이범호(38)가 20년간의 현역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다. KIA는 이범호가 현역 생활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논의 끝에 이를 받아들여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00년 한화 이글스에 입단한 이범호는 소프트뱅크를 거쳐 KIA에서 선수생활을 마무리하게 됐다. KIA 관계자는 “올 시즌을 마친 뒤 은퇴할 예정이었던 이범호는 부상 회복이 더디자 합평에서 남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앞으로 이범호와 향후 진로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범호는 2000년 한화에서 데뷔해 2009년까지 주전 내야수로 활약했다. 이후 일본 소프트뱅크 호크스에 입단했지만 한 시즌 만에 KBO리그로 돌아와 KIA와 계약, 지난 2017년 KIA 타이거즈의 ‘V11’을 이끌었다. 이범호는 KBO리그에서 통산 1,995



경기에 출전해 타율 0.271, 329홈런의 기록을 남겼다. 올 시즌엔 13경기 출전에 그쳤다. 이범호는 “많은 고민 끝에 성장하는 후배들과 팀의 미래를 위해 선수 생활을 마치고 결심했다”면서 “항우 지도자로서 후배들과 함께 즐겁고 멋진 야구를 해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범호의 은퇴식은 오는 7월 13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한화전에 거행될 예정이다. /최진화 기자